

## 봄철, 기생충을 몰아냅시다



민 홍 기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신인 한국 기생충박멸협회가 「봄철은 구충의 계절」이라는 구호(口號)를 내걸고 이에 걸맞도록 광범위한 구충사업을 전개해 온지 꽤 오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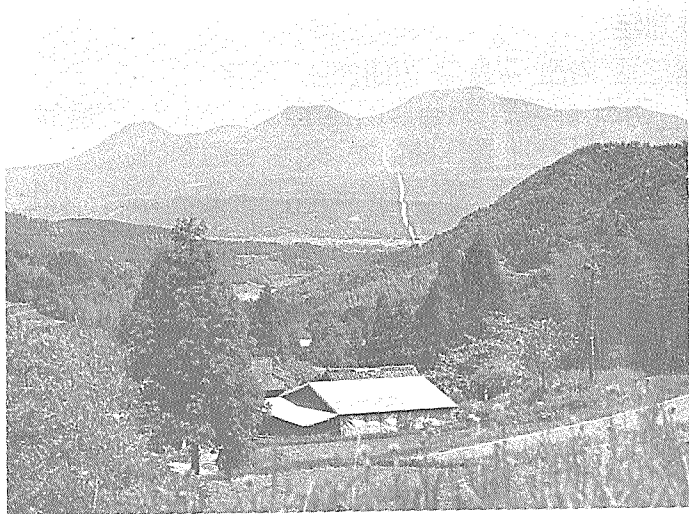
무엇때문에 이런 밝지 못한 구호를 내걸고 그토록 번거로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또한 앞으로 왜 필요한가. 구충(驅蟲)이란 기생충을 없앤다는 뜻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체에 감염되어 있는 기생충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수단이다. 기생충도 생물의 무리일진데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한다는 봄철로 접어드는 3월의 문턱에 서서, 그것도 선진국으로 뛰어오른다는 도약대 위에 서서 구충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어찌면 역설적이라 생각되기도 하며 조금은 우울한 느낌을 갖게 한다.

사람에게 감염된 기생충은 다소를 불문하고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끼친

다. 이들은 생물학적 특징을 근거로 선충류(線蟲類), 흡충류(吸蟲類), 조충류(條蟲類), 원충류(原蟲類), 곤충류(昆蟲類) 및 기타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중 선충류, 흡충류 및 조충류는 사람에게 옮겨오는 양식에 따라 토양매개성 기생충, 접촉매개성 기생충, 절족동물매개성 기생충, 패류(貝類)매개성 기생충 및 식용동물매개성 기생충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본 제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토양매개성 기생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회충, 편충, 구충(驅蟲), 동양모양선충, 분선충 등으로 선충류가 해당되나 그 중 회충은 예로부터 감염률이 월등히 높았고 그 피해가 으뜸이었던 가장 고질적이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과거 보건사회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보고한 우리 국민의 회충감염률은 1971년도 54.9%, 1976년도 41.0



◀농촌에 있어 이러한 대변을 아무런 처치 없이 채소밭에 뿌리거나 재에 뒤버무리려 거름으로 사용할 경우 채소나 과일이 총란으로 오염되며 주위환경 특히 흙이 오염된다.

%, 1981년도 13.0%, 그리고 1986년도 2.1%로 나타나 있어 오늘날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의 경우도 시보다 훨씬 높고, 지역에 따라서는 35%에 육박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아 선진국의 것들과 비교할 때 낮부끄러움급할 길없다. 구충, 동양모양선충 및 분선충 등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지극히 소수에서 검출되었을 뿐이나 편충은 회충검출률보다 더 높고 지역에 따른 분포양상은 회충과 비슷한 실정이다.

이들은 주로 채소나 과일 또는 흙을 매개체로 하여 입을 통하여 감염되며, 발육, 성숙해서 내놓는 총란은 대변에 섞여 밖으로 나온다. 특히 농촌에 있어 이러한 대변을 아무런 처치 없이 채소밭에 뿌리거나 재에 뒤버무리려 거름으로 사용할 경우 채소나 과일이 총란으로 오염되며 주위환경

특히 흙이 오염된다.

더욱이 가을 밭농사를 위하여 여름철과 초가을에 대변을 밭에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따뜻한 지열(地熱)과 적당한 습기에 의하여 보다 더 쉽게 감염 가능한 상태의 총란으로 발육하여 사람에게 들어올 기회를 기다리게 된다.

최근까지 조사된 채소류의 기생충 오염률을 종합해 보면 파, 배추, 무우, 열무, 상치, 오이 등이 각종 선충류의 총란이나 유충으로 높게 오염되었으며 미나리, 당근, 딸기 등에서도 드물지 않게 검출되었고 드물게는 퍼슬리나 셀러리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의 월별 회충감염률 조사 성적을 분석하면 해마다 두번의 높은 정점(頂點)을 보이는 특이한 계절적 변동이 인정되었다. 그 첫 정점은 1~3월이고 두번째 정점은 7~9

## 어떤 구충제든

1회 복용으로 완전 구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여러 종류의 기생충이 혼합 감염되어 있을 때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몰아낸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1차 복용 후 재검사로 구충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현명하다.

월에 관찰되었으며 항상 첫 정점이 보다 분명하고 높았다.

회충이나 편충은 감염 후 충란을 산출(産出)하려면 2~3개월의 발육, 성숙할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 정점은 2~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전년도의 10~12월에 해당되는 기간에 많은 수의 국민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많은 조사자들은 우리 국민의 김장 김치의 호식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니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김장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채소가 높은 율로 각종 기생충란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예로부터 경험해 오고 또한 답습해 오고 있는 김장철의 여러가지 비위생적인 식습성을 고려한다면 첫 정점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염률 정점의 출현은 감염시기와 그 원인을 추정케 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구충을 위한 투약(投藥) 또는 복약(服藥)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봄철은 구충의 계절'이라는 구호아래 구충작

업이 전개되어 온 첫째 이유가 된다.

또한 회충은 유충이나 유약충(幼若蟲)의 상태일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과가 적다. 효과가 가장 크려면 성충(成蟲)일 때여야 한다. 즉 충란검출률이 가장 높은 봄철이면 완전히 성숙한 충체가 가장 많다는 것을 뜻하므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면 3월을 택하여 구충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두번째 이유가 된다.

구충은 대변검사 결과의 판정에 따른 의사의 확진, 적절한 약제의 추천 내지는 처방, 그리고 복용후의 재검사 등 일련의 사전대책을 세워 놓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변검사 없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구충제를 구입, 복용하는 것도 무방하겠지만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비용-효율성 관계를 고려할 때 검변(檢便)이 선행되어야 하며 검변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위협적인 기생충, 예로 간흡충(간디스토마)과 같은 것들의 감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부가적 가치와 의의가 수반된다는 것과 현재로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년 2회의 집단검변과 투약이 실시되고 있으나

기생충증은 많은 경우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기도 하며,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리기도 하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금년 1988년의 봄철에는 모두가 구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면 싶은 심정 간절하다.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및 각 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서는 어느 때나 일반국민의 검변 및 구충에 대한 대책 상담에 응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충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구충제는 무엇보다 효과가 크고 되도록이면 여러 종류의 기생충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며 복용이 간편하고 값이 싸면서도 부작용이 없어 임신부나 어린아이 또는 노약자나 병약자들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구충제이든 이러한 갖가지 좋은 조건을 완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1회 복용으로 완전 구충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며, 여러 종류의 기생충이 혼합감염되어 있을 때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몰아낸다는 것도 곤란하다. 따라서 1차 복용후 재검사로 구충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검사의 시기는 여러가지 이유를 근거로 복용후 2~4주 사이가 적합한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사람으로부

터 검출된 기생충은 400종을 웃돌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검출, 보고된 것들만 해도 50종을 넘는다.

기생충증은 많은 경우 그 증상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병변이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아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기도 하며,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리기도 하나 병변의 진행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실로 견잡을 수 없는 중대한 피해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금년 1988년의 봄철에는 모두가 구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면 싶은 심정 간절하다. 「봄철은 구충의 계절」을 재삼 되 뇌인다.

〈필자=이화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

